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생명존중지구촌 연대뇌건강치과학시연연구원 추진위원장

혼돈과 불안의 순간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을 사람들은 절규하고 있다. '絶叫(절규)'은 '힘을 다해 부르짖다, 힘을 다해 외치다'라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민주인가, 생명인가, 사랑인가?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미술관은 에드바르 뭉크(1863-1944)의 연작 중 하나인 '절규'(1893)가 전시돼 있다. 1901년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우연히 보았고 우연히 알게 된 작품이다. 세계에서 빛나는 그림으로 손꼽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피카소의 게르니카, 보타첼리의 비즈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등과 함께 평가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처음 본 절규에서 붉은 노롤로부터 하늘이 뒤덮이는 공포를 느낀 해골 같은 얼굴을 한 인간이 두 손으로 귀를 막고 힘을 다해 무언가를 부르짖고 있는 그림에서 평생 잊지 못할 불안, 고통,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매튜 D. 리버먼은 '사회적 뇌'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뇌는 생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위해서도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촉각이 발달해 있다. 실제로 피부라는 촉각 조직은 사회적 기관이며, 촉각은 모든 감각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뇌감각이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IX

- 뭉크의 절규와 한강의 노벨문학상

다. 인간은 손을 얹고, 쓰다듬고, 손을 잡고, 끼안고, 팔짱을 끼고, 키스하는 등의 무수한 촉각적 자극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 간다.

절규는 감성적인 뇌의 작용이다. 뇌과학자들은 감성을 흥분, 공포, 불안, 기억, 욕망을 관장하는 신경망의 연결인 '대뇌변연계를 중심으로 한 '즐겁거나 불쾌한 마음의 작용'으로 밝히고 있다. 변연계는 시상하부, 대상피질, 해마, 편도체로 구성돼 있다. 무리 짓기와 구별 짓기 그리고 공격성 본능을 관장하는 시상하부는 스트레스를 통제한다. 대상피질은 인지기능과 주의 집중력을, 해마는 장기 기억을 담당하면서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무엇에 집중하는지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편도체는 대상피질과 작용하여 불안, 공포, 기쁨, 행복 등의 감정을 형성한다. 변연계 바깥쪽의 전전두피질은 사랑, 열정, 미움과 같은 인식 가능한 느낌, 정서, 그리고 단어로 표현하도록 생각하고 조절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뇌는 감정 조절의 전전두피질과 감정 형성의 변연계가 상호작용을 해 느끼고 행동을 결정한다.

뇌에서 미움을 관장하는 경로를 '미움 회로'라 불리지만 '미움 회로'는 '사랑 회로'라고 불리는 곳과도 상당히 겹친다. 우리 뇌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꼈을 때 무리 짓기와 구별 짓기로 대응해 후회집단을 향해서는 사랑과 결속 그리고 협력을 만들고(사랑 회로), 비우호집단을 향해서는 분노와 공포와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미움 회로). 인간에게는 협력과 결속 그리고 혐오와 배척의 스위치가 함께 내장된 것이다.

한강 작가는 12월10일 노벨문학상 수상 이틀 전 특별한 시간을 내어 어린시절 영감을

많이 받았던 동화의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의 집을 방문했다. 린드그렌이 1973년에 발표한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열 살 때쯤 읽었던 한강 작가는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폭력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이 자신의 내면에서 80년 광주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자인 린드그렌은 아동문학으로 죽음을 진지하게 다룬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서 요 나탄과 칼 형제의 목소리를 빌어 옳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5·18의 시간에 시민들은 절규했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잔인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은 탄생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세상은 절규하고 있다. 이제 노벨문학상의 한강 작가로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한다.

그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 그리고 “사랑이란 무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금슬이지”라고 이야기한다. 절규의 시간에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상처와 치유라는 인간의 영원한 화두에 대해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왔다.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이 불가피한 모험을 거치면서 연결된 고통을 사랑으로 포용해 가는 한강 작가의 사유가 필요한 시간 이고 있다.

자치칼럼



이계양

광주푸른꿈청탁학교 교장  
목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때를 대림절(待臨節)이라 해 예수님의 오심(성탄)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보낸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오래전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Are you Jesus?)> 라는 이야기를 상기하게 된다. 요약해 본다.

회사원인 폴이 뉴욕에서 회의 후 동료들과 공항으로 가려는데 급요일 저녁이라서 교통체증으로 택시 잡기가 몹시 어려웠다. 기적처럼 빈 택시가 왔다. 동료들이 재빨리 택시를 타려고 달려가다 길가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려 과일과 야채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동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를 탔고, 그 자리에 멈춰 선 폴에게 “빨리 타라. 비행기 놓친다”고 외쳐댔다. 폴은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시각장애인이었다. 앞 못 보는 할머니가 길바닥의 과일과 야채를 어찌 주위 담겠는가? 폴은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줌기 시작했다. 그 걸을 지나는 누구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이 없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수습한 후 지갑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

“Are you JESUS?(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당황한 폴은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조금 전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도움을 요청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고 뉴욕에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 ofuened you for JESUS?”(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교육,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만연한 불법, 탈법, 무능, 무책임, 무도함, 부정부패, 물상식의 끝에 2024 12·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7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12·8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 12·12 대통령의 적반하장 담화 발표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오로지 사적 이익과 정당의 집단이익에 골몰하고 있는 정국은 분노와 황당에 몸서리치게 한다.

오죽하면 교수신문은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겠는가. ‘도량’은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 ‘발호’는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

로 날뛸”이란 뜻이다. 정태연(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분열 사회에서 가지는 가장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라고 추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 친인척 보호, 정부·기관 장의 권력 남용, 검찰 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균·도술인 등 사인에 의한 국론 분열 등은 하나같이 사익과 특정 기득권 집단의 이기심을 채우려 한 결과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복리라는 공적 유익과 가치는 한낱 구두선일 뿐이다.

세상엔 나(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풀처럼 할머니(타인)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나만 생각하며 살 수 없음을 너무 자명하다. 더더욱 학식, 재능, 돈,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것이 지당하며, 특히 어렵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할머니(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고 귀 기울이고 보살피야 한다. 그리하여 할머니(국민)들이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하고 묻게 돼야 한다. 그때 지도자들은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라고 펄쩍 뛰고, 다시 국민들은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고 말하게 돼야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예수님 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풀과 할머니처럼 한 공동체를 확신하고 싶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독자투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취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공장 등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제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러바 '겨울철 3대 전기제품'으로 불리는

‘겨울철 전기제품’ 사용 부주의가 화(火) 부른다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 열선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화재로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은 잘 다루면 충실한 하인이고 잘못 다루면 포악한 주인이다'라는 서양(영국) 속담

이 있다. 대부분의 화재는 취급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 ‘충실한 하인’을 지혜롭게 관리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위대한 국민의 큰 승리

-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섰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현대의 국정농단으로 파편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렸다. 가급적 이보다 더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로 2개월 안팎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자금의 위급한 경제 여건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 문제를 고려하면 대항 체제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질서있는 심판'이 결코 길어져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에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내린 혐의가 포함됐다. 전체 재적 의원 300석 가운데 3분의 2인 200석이 가결 요건이었으나 찬성 204표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석을 포함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가 더해졌다. 기권과 무효표 등 소극적 이탈 11표에 이른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선 여당 집단 보이콧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매서운 추위에도 국회의사당과 광주 5·18민주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국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터졌다.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1980년 5월의 대대세상과 연결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024년 12월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비상계엄 가담자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직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구속이 속속 집행되고, 국무위원 등

소환조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게 된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업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소통, 상생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음 뿐이다. 현재 심리를 통해 결론이 나오기까지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희망의 촛불을 앞으로도 밝혀야 한다. MZ세대의 응원 붐도 반짝일 것이다.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대통령 권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혼돈이 깊어지고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는 18일을 다 채우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이 현재 3명 부족한 6인이지만 국회가 후임자 추천을 마친 상태인 만큼 정원 9명 체제로 복귀 가능성이 유세하다. 헌법 113조 6인 찬성 규정을 충족한다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까지 차단하게 된다.

현재의 인용 여부는 내란죄 성립을 둘러싼 공방으로 변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진북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가담자들의 폭로, 진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병 확보를 위해 혐의 입증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탄핵이든, 수사는 맞설 것이라고 했다. 탄핵 가결 후 계엄 관련 5번째 담화에서도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사과, 반성은 없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위한 광장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 끝내 국민이 이길 것이다. 그 시간은 그리 멀지 않았다.

아침물어는 詩

발을 놓치다

이지담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신고 뛰어 보고 달려도 보고 얼굴을 닦아주며 반기던  
발고랑 위에 가지런히 나를 앉혀 둔 채 맨발로 일하던  
하루 일이 끝나면 발의 흙을 털털 털고 집에 가져던  
바다 건너 세상 향해 배를 띄우듯 허공을 가르며 내게 날개 달아주던 그  
숨을 곳도 떠남 곳도 없는 섬에서 나만이 어디론가 데려다줄 수 있을

거라던  
예비검속에 걸려 유치장에 연행된 후에도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으며 검은 상복은 입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였다  
총부리에 넘어져 어디론가 끌려가던 그의 발을 놓쳤다  
(시집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는 흔들려서 좋았다', 문학들, 2024)

[시의 눈]

한결레신발은 그 사람의 편력이다. 어머니는 뉘축 꿰맨 고무신을 독에 단정히도 놓아두고 뉘축발에 밤자발을 매셨지요. 내가 진학할 땐 김정 운동화를 사주셨구만요. 4·19 때 난 신을 벗어주고 족자사자 뛰웠지요. 경찰을 피해 나주 이모한테 가던 때였네요. 얼마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CCTV와 시민들이 찍은 국회 안의 영상에서 계엄군 신발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어떤 병사 가 떨어뜨린 걸 주워 들리더니요. 철모와 마스크 가 있었지만, 그중 병사 한 명을 어머니 제 자식이란 걸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긴 다리와 빛이 눈에 띄었지요. 화면 전환으로 놓쳤습니다만, 어머니는 워낙 속밭이 떠올라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많았던 어머니들이 자식의 발을 기억했는지요. 이지담 시인은 나주에서 나 광주대 대학원 문헌과를 졸업하고, 2003년 '시외사망', 2010년 '서정시학'으로 등단. 시집 '고전적인 저녁'(2011), '내에게 잠을 부어주다'(2020)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내면을 총총히 다스리며 대상의 굴곡과 파장을 치열하게 다듬어내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p><b>광주매일신문</b> 1991년 11월 1일 창간 <a href="http://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a></p> <p><b>회장 馬亨列</b> <b>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b> <b>논설실장 金鍾民</b> <b>편집국장 朴恩成</b></p> <p>(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p>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기)·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